



2025년 11월 첫째주일

“사사 돌라, 야일”

사사기 10:1-5

찬양 :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412장)

1. 하나님은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사 돌라와 사사 야일은 기도온의 아들 아비멜렉과 같이 다툼과 분열에 앞장서지 않고 묵묵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며 45년간 평화롭게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섬기고 계십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은 평범함을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사사 돌라와 야일은 평범하게, 변고없이 그들의 직분에 충실했습니다. 기도온과 같은 큰 업적은 없었지만, 에봇을 만들어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지도 않았습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평범하지만 진실한 섬김으로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평범함이 곧 하나님의 은혜요 아름다움임을 깨달은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소중한 경험들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을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슬픔 가운데 있는 백성을 구원하시며, 지친 마음을 평강으로 위로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안식과 참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마 11:28)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함께 나누어 봅시다.